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아보기

실패의 자리, 언약의 흔적이 되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열방의 복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의 삶 속에서는 창세기 22장의 번제 사건과 창세기 26장의 우물 사건을 통해 언약 성취의 과정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일로 배상금을 받아 재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과 질투가 심해졌고, 결국 이삭은 여러 차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우물은 단순한 식수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표징이자, 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경계표였습니다. 실제로 이삭이 그의 인생에서 주도적으로 한 일이 바로 우물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전에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 버렸을 때, 이삭은 그것을 다시 파서 되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은 블레셋의 핍박을 받아 점점 더 남쪽으로 밀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평지에서 시작해 골짜기로, 골짜기에서 광야로, 그리고 마침내 네게브 사막까지 옮겨 갔습니다.

이렇게 쫓겨날 때마다 그는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들은 각각 상황에 따라 이름이 붙었는데, 다툼의 우물 '에섹', 대적의 우물 '잇나', 하나님께서 넓히신다는 의미의 '르호봇', 그리고 맹세의 자리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쫓겨 나간 길을 따라가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경계를 긋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눈에 실패로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기초 작업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도 종종 실패라 부르는 시간과 장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절망처럼 느껴졌지만, 되돌아보면 그 순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경을 넓히시고 경계를 확장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지금 실패의 자리, 풍요에서 밀려나 골짜기와 광야로 내몰리는 듯한 상황에 있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밀려남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있는 자리를, 우물마다 새겨진 언약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 텍스트와 콘텍스트

하나님 이름 안에서 드리는 감사



김성진 담임목사

들어가는 말

많은 사람이 감사의 대상과 방법을 혼동합니다. 흔히 감사의 대상을 ‘받은 은혜와 복’으로 한정하다 보니,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는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시편 136편은 유대교 전통에서 ‘그레이트 할렐’(Great Hallel) 또는 ‘큰 찬송’이라고 불리며 가장 위대한 감사의 시로, 유월절 절기 때 찬양되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이 시편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며 감사의 방법은 그분이 베푸신 구체적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감사의 대상

시편 136편을 살펴보면 “~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모든 구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1, 2, 3, 26절에 네 번만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구절에서만 감사 명령이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 안에는 임마누엘, 곧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동행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는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감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며, 늘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은 원어로 “신들 가운데 신”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공간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며, 가정과 교회와 직장, 그리고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과 사건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아름다운 순간들

과 소중한 만남들이 있었는데,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픔과 고통, 상실과 눈물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하였고, 그분의 창조질서와 계획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은 고난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 좋은 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시간과 만남과 사건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참된 감사, 조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서 시작

감사의 대상, 여호와·엘로힘·아도나이·엘 샤마임 하나님

네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좋은 일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구체적인 삶 속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드리는 감사여야 ”

세 번째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3절)라는 표현은 최고의 주인, 곧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자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통치와 보호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 왕 노릇하려 하고,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삼으려 하며 영적 전쟁을 겪습니다. 그러나 아도나이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끝까지 통치하시며 영적 전투 속에서도 우리를 대신해 싸워 주십니다.

따라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신 아도나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보호 아래 살아왔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보여주신 아도나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의 하나님(엘 샤마임)’으로, 이 이름은 모든 피조 세계를 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 136:1-3, 26)

월하여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입니다.

엘 샤마임 하나님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동물, 식물, 이방인까지 포함해 모든 피조물에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추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명과 일용할 양식, 안전과 환경까지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유지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거두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 존재와 생명을 지속적으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감사의 방법

시편 136편은 네 가지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려야 함을 알려주고, 다음으로 올바른 감사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4절에서 25절은 네 가지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은 하늘과 땅, 해와 별, 동물과 식물 등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찬양하고, 10절에서 16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동행을 찬양하며, 17절에서 22절은 가나안의 왕들과 세상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왕으로 역사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은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 통치, 보호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체적인 은혜를 총망라하며,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이 네 가지 범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신 구체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과 자녀에게 주신 믿음’, ‘유아세례와 세례를 통한 신앙 성장’, ‘결혼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막연한 감사는 내용 없는 편지와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우리는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지만,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대상과 내용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신 구체적인 은혜입니다.

이를 위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 삶과 교회 속에서 이루신 상세한 은혜를 기록하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창조와 구원, 통치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감사입니다. ✨

가을말씀사경회 취재

예배·섬김·선교, 신앙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다



흑평이 가져다 준 선물

필자는 20대에 하나님을 만났다. 극적인 회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응은 격하였다. 자타가 공인할 만큼 나는 꽤 ‘뜨거운 신자’였던 것 같다. 몇 년이 흐른 어느날, 당시 출석하던 자그마한 교회의 목사님께서 스치듯 내게 말씀하셨다. “자매는 교회관을 새로 배워야겠어요.” 교회의 기본을 모른다는 ‘흑평’에 나는 무척 당황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내 귀에 쓴 그 말은 내게 양약이 되었다.

지난 10월 21일(화)부터 사흘간 진행된 사경회는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교회의 기본에 대해 성경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늦은 여름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초겨울의 찬 기운 속에서, 참석자들은 마치 겨울살이를 준비하는 동물들이 영양분을 비축하듯, 한해의 남은 두 달여의 시간을 더욱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교회의 기본으로 돌아가다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엡1:22~23)’, ‘우리는 섬기는 교회입니다(사49:5~7)’,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사2:2~4)’라는 제목으로 사경회가 이어졌다.

첫날 담임목사님은 종교개혁의 본산이었던 독일의 50여 년 전 교회 상태와 이 땅의 상황이 유사함을 말씀하셨다. 주일예배 참석자의 현저한 감소, 경축 및 기념예배의 활성화, 예배의 정치화 등이다. 이후 독일 교회는 쇠락의

길로 치달았다. 이것을 막는 길은 평생 성경적 예배 회복을 위해 몸부림쳤던 존 칼빈의 예배 원리, 즉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참된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열린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균형 잡힌 예배로 나아가야 하며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둘째 날은 성경적 섬김이 무엇인지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흥미진진하게 소개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왕으로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다. 타락 후 힘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힘이 없는 자는 어쩔 수 없이 권력에 눌려 복종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창조 목적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아름다운 창조적 섬김을 회복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셋째 날에는 교회의 역할인 선교에 대한 말씀이었다.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채우시고 흠으심’이 드라마처럼 이어진다. 흠어짐을 거부하는 인류의 바벨탑 사건에 곧바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순종, 가나안 땅을 선교 거점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과 이 사명을 이어받게 된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채우시고 흠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따라서 열린교회는 사람을 키워내는 선교를 지향할 것이다. 거미가 ‘거미집’을 짓는 방식으로 열린교회를 거점 삼아 현지 목회자들을 부르고 세우며, 부르시고 흠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것이다.

익숙함을 넘어, 본질로

‘예배’, ‘섬김’, ‘선교’ — 기독교인에게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이다. 그러나 익숙함 속에 때로는 그 생명력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신앙 언어가 형식으로만 남을 때가 있다. 이번 가을말씀사경회는 그 익숙한 단어들 속에 담긴 성경적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섬김은 회복자로서 사랑의 실천이고,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다. 올가을, 우리는 이 세 가지 주제가 다시금 성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신앙의 본질임을 확인하며, ‘교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누렸다. ☆

취재: 신미숙 기자 pacific1009@naver.com

교회 소식



2025 교사수련회

주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사명자, 교사!”
일시: 11월2일(주일) 오후2시30분
장소: 청소년부실(열린빌딩1층)
대상: 교회학교 교사
자녀돌봄: 잔디구장(열린빌딩 지하1층)

햇 에이지 세미나

가정사역부(목양사역위원회)는 중년 이후의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하고, 관계 속에서 다시 세워지는 지혜를 나누기 위한 ‘햇 에이지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제: “중년, 의미있는 삶 살아가기”
일시: 11월8일(토) 오전10시30분
장소: 청소년부실(열린빌딩1층)
대상: 중년 이후의 삶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내용: 1강) 중년의 삶, 어떻게 살아갈까(손신 교수)
2강) 성인 자녀와 잘 살아가기(최금순 교수)

신청: 배너 하단 QR코드로 신청

신청기간: 11월2일(주일)까지

회비: 1만원

문의: 이경자 팀장

사춘기 자녀 어머니 세미나

주제: 사춘기 자녀와 함께 걷는 길
일시: 11월22일(토) 오전10시20분~오후4시

장소: 교육실4(별관2층)

대상: 사춘기 자녀의 어머니

신청: 1층, 3층 예배실 입구 신청함/배너 하단 QR코드로 신청

신청기간: 11월9일(주일)까지

회비: 1만원

문의: 양승희 전도사

주요사역

1일(토) 온세대아침예배
2일(주일) 교사수련회
2일(주일)~16일(주일) 2026 신입제직교육(3주)
8일(토) 부모기도회 / 햇 에이지 세미나
9일(주일) 학습·세례·입교·유아세례식
14일(금) <열린, 빛으로의 초대>
16일(주일) 추수감사주일(성한식) / 영아부 예비학부모 설명회
21일(금)~22일(토) 하반기 당회수련회
22일(토) 사춘기 자녀 어머니 세미나
23일(주일) 북한선교세미나
25일(화) 전도대원의 날
30일(주일), 12월7일(주일) 2025 장년교구총회

새가족

▶▶ 장년

변영자(45)

최수정(67)

김서혜(92)

엄광철(86)

이선복(87)

김찬별(92)

▶▶ 청년

이은택(06)

윤종민(91)

김관배(91)

소경준(88)



추천도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종훈/충신대학교출판부

예배는 예배자들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임재에 반응하기 위해 참여가 요구된다. 예배 참여 자체에만 목적을 둘 경우, 예배 구성 요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신학적 판단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예배는 예배자들로 하여금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실험성과 호기심의 반영 방식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예배 구조와 구성 요소들에 대한 존중과 신학적 목회적 분별에 따른 제시가 필요하다.

…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분과 연합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귀고 연합의 과정으로서 삶을 형성하는 데 기도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삶의 과정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 변화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병들고 왜곡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시각에 의해서 새롭게 보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기독교 신앙의 가치에 따라 반응하는 참된 치유와 회복을 요구한다. 이러한 회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주어진다. 예배는 인생에서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연속적인 경험이자 과정으로서 예배자들로 하여금 선교적 존재가 되도록 형성해 준다.

(책 중에서)



산불피해돕기헌금 보고

함께 그리고 나란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재건하다

2025년 3월 22일 발생한 산불로 청송, 안동, 영양, 영덕 등 경북 지역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기후로 불길의 속도가 빨라져 확산되었고, 국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번 산불로 사망·부상자 60여 명, 주택 전소 4,400채, 산림 99,490헥타르가 소실되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단일 산불로는 가장 큰 피해 면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열린교회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피해 이웃을 돕고자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나섰습니다. 4월 27일 주일 광고를 시작으로 5월 11일까지 3주간 특별헌금을 진행하였으며, 많은 성도님께서 기도와 사랑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총 3,7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원 방안을 계획하였고, 최종적으로 복지부 이웃사랑팀을 중심으로 열린교회 성도들이 추천한 교회와 경북 지역 교단에서 추천한 교회를 대상으로 후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1일 1차로 청송 지역 피해 교회 및 성도 가정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열린교회 성도님께서 추천해 주신 진보교회 및 주택이 전소된 성도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주택이 전소된 가정

은 대부분 철거가 완료되었거나 철거 중이었으며, 이들은 체육관 등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과수, 농기구, 생활가구 등 생계 기반의 피해도 컸습니다. 그 외에 합동측에 속해있는 증평평화교회·성지장로교회·광야교회 등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진보교회 소속 주택 전소 가정 7곳을 8월에 1차 후원하였습니다.



이번 산불은 교회 건물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예배당과 사택, 교육관 등이 전소되어 예배와 생활의 터전을 모두 잃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10월 17일 피해 교회를 답사한 후, 성지장로교회·목계교회·매정교회를 후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약정하였습니다. 후원 품목은 예배용 물품(강대상, 강단 의자, 장의자), 음향 및 영상 장비(스피커, 마이크, 프로젝터, 대형 모니터), 성구류

(피아노, 헌금함, 주보장), 기타 생활물품(냉난방기, 냉장고) 등으로, 교회 신축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헌금과 후원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피해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임을 고백하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온몸이 함께 아파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무너진 예배당의 재건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과 믿음의 회복이며, 피해 성도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도록 돕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과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며, 그 일에 우리 열린교회가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많은 성도님의 기도와 헌금으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님 가정이 다시 일어나 예배 처소가 마련되고 삶의 터전이 복구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 “함께 그리고 나란히”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열린신학세미나 취재

마태복음, ‘임마누엘’에서 ‘하늘’로 가는 이야기

제1회 열린신학세미나가 지난 9월 29일, 교회 내 외부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세미나 전 개회 예배에서 담임목사님은 열왕기하 22장 8~13절을 본문으로 ‘말씀이 이끄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희귀했지만 종교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던 요시야 시대를 빗대어 오늘날에도 ‘적용’은 있으나 ‘텍스트’는 없는 현실을 진단하셨습니다. 또한 환영사에서는 설교와 성경 강의를 넘쳐나는 시대임에도 성도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참된 가르침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를, 성경의 본질이라 할 ‘신학의 실종’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권위 있는 신학자들을 초청하여, 성경의 신학적 토대와 그에 근거한 설교의 방향을 함께 배우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강대훈 교수님을 강사로 모시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5강으로 진행되었으며, 범위는 마태복음 전체였습니다. 이날 강의의 전체적인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전기적 기록으로, 모든 세대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내러티브 구조를 가짐/예수님의 탄생과 계보, 요셉의 꿈, 임마누엘의 의미를 통해 예수님이 참된 다윗의 아들이자 모든 민족을 위한 언약 성취자임을 보여 줌/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갈릴리에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 선포, 말씀 전파와 치유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음을 증거함/산상수훈과 팔복으로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제시함/치유와 기적, 귀신 쫓음으로 권세와 긍휼, 속죄와 회복을 드러내심/하늘나라 비유와 제자 교육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마지막 날 심판과 구분이 이루어짐을 가르

치심/교회 공동체의 질서, 용서, 섬김과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함/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과 비유를 통해 순종과 삶의 열매,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 주심/종말과 징조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제자들을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과정을 완성하심



마태복음은 성경 중에서 비교적 익숙한 책에 속하는데도, 그 문맥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 몇 가지 인상 깊은 지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치시는 것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항상 연결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할 때 제자들이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마음 깊은 곳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소자’를 섬기는 삶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교수님은 누군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소자인가?”를 자문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섬김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소자를 대하는 일은 일상에서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그 세밀한 영역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구약 인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성경 저자의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며, 그만큼 성경 전체를 더 깊이 읽고 연구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번 강의의 부제를 ‘임마누엘과 하늘의 관계로 다시 읽다’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는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 ‘하늘’로 끝난다”라고 하며,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선언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주권의 선포로 완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 사건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여정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예수의 생애 기록이 아닌 구원의 대서사로 읽어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신학교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맨몸으로 참석해 맛있는 식사와 정성 어린 간식까지 대접받으면서 배우게 되니, 이렇게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도 되나 하는 부담과 감사가 교차한 하루였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참 진리인가?”라는 분별의 걸림 과정 없이도 마음껏 받아들여도 좋은 말씀을 선별해 주는 교회가 있고, 내가 그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새삼 큰 행복으로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

취재: 진광희 편집장 chin6604@gmail.com

전도회장 인사

남전도회



곽경신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제가 1남전도회 회장으로 섬기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교제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학진집사

섬김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주님과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최복진 집사

열린교회에 전도회를 발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교제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전도회를 통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온전해지도록 부르심에 충성하겠습니다.



최영재 집사

주님처럼 교회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부족한 제가 갑자기 중요하고 큰 직분을 맡게 되어 부담이 큼니다. 전도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대와 순종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걸음을 시작합니다. 전도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 간의 교제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고,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는 모퉁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동식 집사

우리 교회는 교구 중심의 돌봄 사역과 위원회 중심의 봉사 사역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구를 넘어서는 교제가 다소 부족했기에, 이제는 같은 연령대의 지체들이 교제의 폭을 넓히며 이웃을 섬기라는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도회 사역은 교회가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의 길을 성실히 걸은 5남전도회 회원들께서 묵묵히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훗날 돌아볼 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귀한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도회



이세희 집사

우리 교회에 전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믿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귀한 또래 공동체가 생겨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교회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희 집사

2여전도회 회장으로 섬기게 되어 기쁨과 함께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원들과 친밀감을 쌓고 서로를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며, 작은 일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는 전도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하나 됨을 이루고, 2여전도회가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길을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허영주 권사

제가 어릴 적 어머니 세대 집사님, 권사님들이 여전도회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여러모로 섬기시던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이런 믿음의 뒷세대들을 생각하며 저도 겸손한 마음으로 3여전도회 지체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유재명 권사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제가 4여전도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겠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어떤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웃음이 넘치는 따뜻한 여전도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세요.



허혜숙 권사

어떻게 제 기분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전도회 회장 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사역이라 생각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열린교회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기쁨을, 신앙의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지혜교육 후기

아이들의 선택지에 '하나님'이 새겨진 가정지혜교육



열린교회에 첫째 아이가 5개월일 때 왔는데, 이제 첫째는 유아부 5세 왕언니, 둘째는 영아부 3세 왕언니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아동가족학을 전공하고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영유아기에 가정에서 신앙을 지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 초보운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영유아기를 보낸 경험이 없기에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늘 막막했습니다.

더구나 목회자의 아내로 지내다 보니 혼자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고, 그만큼 지혜가 필요한 자리임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저에게 열린교회 주일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된 축복이자 선물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 돌이 지난 어린아이도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보게 되었고, 여름성경학교와 사경회, 학부 모기도회, 세빛교실 등 영·유아부 프로그램을 통해 육아의 우여곡절마다 회개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특히 아이들이 잦은 병치레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는데, 전쟁터처럼 싸우는 날들이 많았습

니다. 저 역시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을과 함께 시작된 '가정지혜교육'은 저를 다시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을 때, 마치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에 온 것처럼 철저한 공과교육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부모가 주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찬양과 암송뿐 아니라, 안경·전화기·마이크·인형과 같은 교구도 지원받아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꾸미기와 만들기 활동을 하며 부모가 직접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니 아이들이 훨씬 집중하며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눈, 귀, 입, 손, 발의 지혜'를 주제로 매주 한 과씩 진행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아이들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매주 공과를 받아오는 아이들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월요일에 하던 지혜교육을 주일 저녁으로 앞당기더니,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유모차 안에서도 찬양하고 암송하며 하나님을 이야



송수진 사모구역
vgongju@gmail.com



기합니다. 저에게도 이 시간이 너무나 큰 선물처럼 다가왔습니다.

지혜교육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밤 두 자매가 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잔소리를 했겠지만, 이번엔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꺼내 보았습니다. "우리 입은 누가 만드셨지?" "하나님!" 순간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움의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입으로 어떤 말을 하길 기뻐하실까?" 그 말에 아이들은 서로 사과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30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미소 짓고 행동을 멈추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는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가정지혜교육을 통해 주일학교 중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가정에서도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쳐 아이들이 인생의 수많은 선택 속에서, 선택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자라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결혼예비학교 후기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여정

결혼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우리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부로 서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결혼을 다시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배우고 싶어 결혼예비학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주 동안의 시간은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이 단순히 결혼식을 치르는 준비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의 창조질서'를 배우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성경적 결혼관'을 배우며, 결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명으로 묶인! '연합'의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며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결혼생활에 든든한 기초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를 알아가요'라는 주제로 서로에 대해 깊이 통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 감정 표현, 사랑의 언어 등 서로 다른 점이 갈등의 원인이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조화의 재료

이자 선한 차이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름을 통해 서로를 완성시키고, 함께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배워 앞으로 결혼생활에서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다름을 사랑으로 품는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부부 재정과 결혼생활 설계' 시간에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지혜롭게 계획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정을 청지기의 마음으로 관리하는 것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할 때 평안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부부관계와 소통'에 대해 배웠습니다. 피할 수 없는 갈등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의 대화인데, 이는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적 리듬을 함께 맞추는 '훈련'이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예배'라는 말씀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실제적 대화법을 배우고 상대방 입장으로 말하기와 능동적 경청을 잘 할 것에 대해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사랑과 존중을 담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주간의 과정을 통해, 결혼이 '둘이 행복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여정'임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준비된 결혼이 아름답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제 결혼을 앞두고 막연함보다 감사와 기대가 더 커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신 '팀'이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각자의 뿌리와 힘이 되어주신 부모님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오신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대화하며 작성한 부부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돕는 배필'로 서로를 채우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이 토브(좋은)의 결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말씀으로 다져진 사랑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따뜻하고 단단한 가정을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결혼예비학교를 위해 강의해 주신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강사님과 가정사역부 섬김이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한 섬김을 통해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창조질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여러 지경을 넓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예비부모학교 1기 참여자 후기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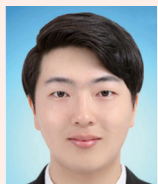
하나님의 선물, 부모의 길을 배우다



이원웅(이상아) 장년3교구

모든 프로그램이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과제 중에 있었던 잠언 필사는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1기 예비부모학교에서 수준 높은 강의와 다양한 배움을 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점은, 예비부모들 간의 친목과 교제를 위한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서로 정보를 나누고 소통하며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기 예비부모학교를 수료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고해 주신 모든 강사님과 스태프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이현섭(김보경) 장년3교구

강의를 들으며 '내가 왜 자녀를 가지고 싶은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약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2세를 준비했지만, 아이가 쉽게 찾아오지 않아 난임 병원을 계속 다니며 막연한 기다림과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3년의 기다림 끝에 귀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출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도, 정작 '왜 아이를 낳고 싶었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엄마, 아빠는 나를 왜 낳았어요?"라고 묻는다면,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었을 때, 그 사랑의 열매인 너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께서 주셨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왔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출산이 임박하면서 '이 아이를 바르게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소년들에 관한 뉴스를 볼 때면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의를 통해, 그런 두려움을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보다, 매 순간 내 눈앞에 있을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온전히 맡기고 키워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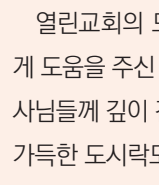


최은지(한가람) 장년6교구

결혼을 시작할 때, 우리 부부는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자"는 다짐으로 출발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면서는 세 사람이 될 미래를 바라보며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부모로서 함께 성장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다짐은 곧 '부모가 되는 교육을 통해 함께 배우고 노력하자'는 목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 광고에서 예비부모학교 소식을 접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강의를 남편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참 기뻐했습니다. 첫 시간 예배에서 들은 '부모의 헌신과 자기 부인'에 관한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매주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인상 깊었던 내용을 함께 나누며, 일상에서 부부가 그 내용을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 참 감사했습니다.

요즘 임신과 육아에 관한 정보는 도서나 미디어를 통해 넘쳐나지만, 막상 뚜렷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웠던 저에게 이번 예비부모학교는 정말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열린교회의 모든 예비부모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세심하게 도움을 주신 스태프 집사님들과 알찬 강의를 전해주시는 강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영양 가득한 도시락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벌써 한 달의 교육이 끝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시간이 짧게 느껴져 아쉽습니다. 앞으로 열린교회에서 이어질 교육들을 기대하며, 모든 예비부모가 남은 임신 기간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복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



이청아(김주호) 장년1교구

처음 '태아 교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태아 때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며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과 말, 행동이 태아인 '프림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부터라도 엄마로서 더 따뜻하고 살갑게 말을 건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셨다는 감격이 밀려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강의에서도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셔서,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만큼, 나의 아이의 아버지이자 주인 되신 하나님께 '프림이'를 온전히 맡기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아기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여러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강의 마지막 시간에 들은 말씀처럼 언제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야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

양육교사훈련학교 후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윤영덕 장년1교구
yun0duk@naver.com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전12:1).

캠퍼스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평생 순장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던 나를 열정이 넘치던 청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웃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있으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서 일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자기계발도 하면서 나를 참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약간의 여유가 생길 무렵,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처음이라 서툴지만, 남편이라는 역할을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며, 역시나 부족하고 어설피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로 그렇게 한동안 바쁘게 지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끔은 예전에 품었던 그 열정과 하나님을 향했던 그때의 그 간절함이 그리울 때도 있었고, 여유가 다시 찾아오면 언젠가는 예전 그때 품었던 그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리라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었지만, 이내 일상과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래 가던 길을 재촉하여 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의 모든 것이 멈추었고, 언제 끝이 날지 몰랐던 기나긴 코로나로 마음과 영혼이 서서히 지쳐갈 무렵, 병환이 있으셨던 청년의 아버지는 점점 병세가 악화되시더니, 결국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에,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청년은 아버지의 입관예배를 드리면서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이 인생에서 더 이상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인간이 결국 마주할 죽음을 이제부터라도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서 거울을 보았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청년의 모습은 더 이상 20대의 그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곧 50을 바라보는 한 중년의 남자가 그 거울 속에서 묘한 표정으로 이 청년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와도 같은 30, 40대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채 그냥 허무하게 공중에 흩어버린 것 같아서 허탈하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또 주저하고 잠들어 버리면 정말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잠들고 나면, 한참 후에 다시 깨었을 때는 이 중년의 남자가 아닌 백발의 노인이 나를 바라보고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원망 섞인 눈으로 나를 바라볼 것만 같아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이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기에, 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의 창조자를 기억하리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이야기는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이며, 제가 양육교사훈련학교에 참가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따금 믿지 않는 친구나, 회사에서 만나게 되는 직장 동료들과 기회가 생기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 혹은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들을 물어보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저에게는 이렇게 명확하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진리가 그들에게는 너무도 어렵고 불편하며, 심지어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당혹스럽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토록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번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주간의 교육과 두 권의 교재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초심자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잘 정리할 수 있었던 점이 참으로 유익했던 교육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찬찬히 정리해 가면서, 기독교의 참 진리가 제 안에 다시 한번 확신되고 채워지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중 실습으로 세 번의 양육을 실제로 진행해야 했는데, 이론과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양육을 직접 해본 것도 유익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품고 다가갔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나의 모습과 한계를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거부하고 관심 없어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화가 나기도 하였으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 역시 오랜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며 방황했던 때가 있었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를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듯, 이들의 거절과 무례함도 품고 더 기도하며 기다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심을 것이고 누군가는 물을 주겠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그 영혼이 잘 자라지 못한다고 너무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영혼을 위해서, 부지런히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에 충성을 다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자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6-7). ☆

열린, 빛으로의 초대

11월14일(금) 오후7시 | 예배실(본관3층)

내용: 저녁식사/무지컬 천로역정/말씀
초청대상: 가족, 이웃, 친구, 직장동료 등

곰곰이 생각

열심과 욕심 사이에서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자신은 ‘욕심 없이 산다’라고 말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을 내려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녹는 아이스크림을 바라보듯 시간을 허비하는 이들이 그렇고, 이원론적인 인생관을 가진 이들이 그렇습니다.

난 욕심 없이 산다고!



자신은 ‘열심히 산다’라고 말하며, 자족하는 사람을 내려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즐거움을 모르는 이들이 그렇고, 세속적인 인생관을 가진 이들이 그렇습니다.

난 열심히 산다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시간이기 때문이며,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31편 1~2절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1-2절



저는 탕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처음 교회를 다닌 것은 미취학 시절로, 부모님 손에 이끌려 따라간 것이 전부였기에 어느 순간부터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이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처음 경험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 보니 좌절하는 일이 많았고, 고등학생 시절에는 교회와 다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교회를 찾게 되었고, 부모님과 우연히 가게 된 교회에서 따뜻하고 차분한 설교 말씀에 이끌려 주저함 없이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전에 살던 안양으로 돌아왔지만, 열린교회에는 등록하지 않은 채 한동안 말씀만 듣는 신앙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설교 말씀은 너무 좋았지만, 당시 교회에 부담을 느낀 이유는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과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돌아보며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며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제 신앙을 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린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반 5주 교육을 마친 후 20주간 성장반 교육을 받으면서, 교인분들을 통해 따뜻함을 느꼈고,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 덕분에 행복하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반 수료 후에는 예배만 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교육을 받는 과정과 예배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성장반 섬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봉사와 섬김이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채워졌고, 또 그렇게 마음에 감사함이 채워지니 할 수 있는 일들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그리스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섬김에 기꺼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성장반 섬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도움이 필요한 길로 인도하심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에도 점차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고, 주일예배만 드리던 제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평일예배, 사경회, 주바라봄기도회, 새벽예배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설렘의 마음으로 국내 아웃리치에 함께할 수 있었고, 청년부 2박 3일 여름수련회에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에서 스태프로 섬기면서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섬김에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전의 저라면 그 기회를 흘려보냈겠지만,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회학교와 아이들에 대한 귀함과 중요함을 몰랐던 제가 그 곳에 가서 중고등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도 갖게 됐습니다.

섬김의 시간은 때로 지체들을 통해, 또 과정을 통해 오히려 제가 섬김을 받는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섬김이들의 실천적인 모습 속에서 배우며, 그 선한 마음에 점점 동화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섬 없이 이어진 이러한 경험 속에서,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감을 느낍니다. 순모임과 성장반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는, 삶에 적용되는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면서, ‘저 사람도 꼭 사랑해야 할까?’ 싶었던,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던 지체에게도 적어도 미워하는 감정만큼은 품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며 내 자신에게 같은 죄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켜보면, 마음의 힘이 약해 시련이 올 때마다 회피하거나 쉽게 무너졌던 과거의 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간 정제되어 있던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 힘들어도 견디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감하게 됩니다. 주어지는 순간순간의 상황에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으로 작은 용기만 내어도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주님임을 글을 쓰는 지금도 느낍니다.

저는 올 초 ‘작은 예수’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마냥 즐겁고 기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무겁게 다가와 힘들기도 했습니다. 말의 무게를 모르고 가볍게 시작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약한 마음이 들며, 때로는 주님께 한 말을 회수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삶을 향한 결단과 작정,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에 실망시키는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짐처럼 느껴지던 소망조차 이제는 ‘기꺼이 걸어보자’, ‘걸어가겠다’는 용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느꼈던 ‘순종’과 ‘믿음’의 영역에서 한 발짝 용기 내어 나아갈 때마다, 더 큰 변화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채워주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믿음 그 자체라는 말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저 자신에게도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서의 짧은 삶을 살아갈 때, 이왕이면 주님께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서 기꺼이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작은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 풍조 속에서도 사랑으로 이웃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많아지는 것도 소망합니다. 함께 가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뒤따라오는 힘이 더 강할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열린교회 성도님들, 특히 청년부 공동체에 감사한 마음을 고백드립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진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희 이동훈 박희준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호 김남근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환 김하림 이규희 김동기 손하람 최영광 김진산 김태영 정호석 최은광 김민성 이두호 조일권
협동목사	정창욱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 박혜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찬 이순이
교육전도사	곽승훈 권세원 이해선 박주광 김태훈 최현성 한하영

파송선교사

A국: 2 units / B국: 1 unit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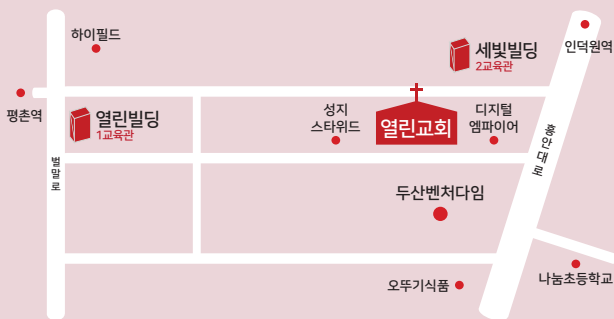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태국: 김요한 & 이진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8시(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10시(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2시(본관 3층 예배실)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오후7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목요직장인예배	정오12시(본관 3층 예배실)
기도회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금요기도회	오후8시(본관 3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10시(본관 1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회	오전10시30분(본관 3층 예배실)
	토요강단기도회	오후4시(별관 2층 교육실4)
	토요강단기도회	오후4시(별관 2층 교육실4)
교회학교	청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 1층 교육실1)
	소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10시/정오12시(열린빌딩 2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유치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10시/정오12시(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영아부	오전10시/정오12시(별관 1층 교육실2)
	사랑부(취학부)	오전10시(별관 1층 교육실1)
외국인	사랑부(청년부)	오전10시(별관 2층 교육실4)
	외국인팀	정오12시(세빛빌딩 5층 외국인실)
백향목공동체	봄·가을학기	금요일 오전10시30분(본관 1층 예배실)
금요	미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1)
테마학교	취학부	오후8시(별관 1층 교육실2)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주님은 그 자리마다 사랑의 흔적을 새기시며 우리를 작은 예수로 세wig가십니다.